

간호대학생의 진로교과목 수강 유무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차이

정경숙, 김동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o Take Career Courses of Nursing Students

Kyeong-Sook Jeong, Dong Won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합리적인 진로 선택을 위해 진로교과목 수강 유무에 따른 진로준비행동과 전공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B시 소재 간호대학생 221명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동질성 검사는 χ^2 -test, 공분산분석(ANCOVA)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진로교과목 수강 유무에 따라 진로준비행동($F=438.08, p<.001$)과 전공만족도($F=461.45, p<.001$)는 두 구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진로결정을 돕는 전략으로 진로교과목 활용을 제언한다.

주제어 : 진로교과목,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간호, 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ajor satisfaction level according to whether or not nursing students have taken career courses for nursing students to make rational career choices. The participants were 221 nursing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December 1 to 15, 2019. The data was analysis with frequency and percentage, χ^2 -test,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d ANCOVA by using SPSS/WIN 20.0 program. The results were of this study showed that carrier preparation behavior($F=438.08, p<.001$), Major Satisfaction($F=461.45, p<.001$) have been confirmed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 on attending to college career course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use career courses as a strategy to help nursing students make successful career decisions.

Key Words : Career course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jor Satisfaction, Nursing,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Dong Won Kim(dongwon1081@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27, 2021

Accepted December 20, 2021

Revised October 19, 2021

Published December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진로는 대학생 시기에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로, 대학생은 이 시기에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탐색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세계에 입문하게 된다 [1]. 2015년 이후 「진로교육법」 제정과 「교육부진로교육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대학교육의 책무성과 함께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많은 대학은 진로상담, 취업특강 및 진로교과목 운영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2]. 그 중 학점이 부여되는 진로교과목은 학생들의 선택 용이성, 학점 부여로 인한 접근의 용이성, 충분한 교육시간 확보, 다수 학생들에게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성 등의 이점으로 인해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2, 3].

간호 분야는 의료영역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다양한 의료환경의 변화와 간호사 수요 증가에 따른 직업 획득의 용이성 등으로 간호학 지원률이 증가하고 있지만[4].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보다는 성적이나 취업을 고려하여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5]. 또한, 많은 간호학과 입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없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6] 그 결과 취업 후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면 조기이직으로 이어지며[7] 이는 임상현장에서 간호의 질 저하와 새로운 간호인력을 선발하고 교육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어[8] 간호대학생에게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진로준비행동이란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하여 수행하는 노력과 결정한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9], 이는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탐색과 경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준비된다[10]. 한국고용정보원 CDP-C 진로프로그램[11]에서 발표한 진로교과목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진로 의사결정이 반영되어 있으며, 여기서 나아가 진로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로계획 및 준비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학에 입문한 이후에도 다양한 진로를 찾기보다는 대상자의 80.9%가 국내 종합병원에 취업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 취업을 원하는 2.5%의 소수만이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간호 대학생들보다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그러므로 대학생활 동안 다양한 진로 탐색 경험과 학습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는 것은 향후 간호대학생들의 성

공적인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대학진학 시 적성이나 흥미 등 개인적 가치보다는 대학에 무조건 입학해야 한다는 위기감으로 합격 가능한 성적이나 주위 기대에 맞춰 전공을 선택하고, 이러한 학생들의 많은 수가 전공학과에 대한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13]. 전공과목에 대한 부적응은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낮은 자신감으로 이어지며 추후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5]. 그러나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되면 전공이 수 과정에서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관심, 적성, 흥미 등에 따른 전공일치 여부에 대하여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공에 대해 만족하게 된다 [14]. 전공만족은 단순히 대학생활을 즐겁고 긍정적으로 보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직업을 선택과 미래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15] 성공적인 직업 선택과 졸업 후 긍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하여 전공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로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진로 교과목을 수강 한 후 진로탐색행동[16], 진로결정수준 [17, 18], 진로정체감[16, 17], 진로탐색효능감[16, 18], 진로준비행동[18-20] 등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있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과 함께 특히 전공만족도를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과목 수강유무에 따라 진로준비행동과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들의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진로 선택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교과목 수강유무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교과목 수강유무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비교한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교과목 수강유무에 따른 전공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비교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교과목 수강유무에 따른 진로

준비행동과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B시 소재 일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편의추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가 수강한 진로교과목명은 '대학생활과 진로설계'로 1주일에 1시간씩 12주 동안 운영하고 1학점의 성적이 부여되었다. 수업은 자기탐색, 진로탐색, 진로설계 및 준비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수강생은 진로로드맵 보고서를 최종 제출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으로, 2019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본 연구자가 해당 학과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협조를 얻어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G*power program 3.1.9에 근거하여 유의수준 .05(양측검정), 효과크기 medium .5, 검정력 .95로 했을 때 각 그룹 당 105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적절하였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각각 115부씩, 총 230부를 배부하여 설문지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9부를 제외하고 총 22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문항을 포함한 전체 51문항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2.3.1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Choi와 Kim[21]가 개발한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이해행동 10문항, 직업능력향상행동 9문항, 직업세계탐색행동 6문항 등 3개 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91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93 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미국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를 수정·보완

하여 Kim과 Ha[22]가 작성한 34개 학과만족 도구 중 Lee[23]가 전공만족 관련된 18문항을 추출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공하고 있는 학문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따른 '일반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6문항, 교과 내용에 대한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 간의 '관계만족' 3문항 등 4개 요인,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2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90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95 이었다.

2.4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0.0 program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진로교과목 수강군과 진로교과목 미수강군과의 동질성 검사는 χ^2 -test로 분석하였다. 두 집단 간의 진로준비행동과 전공만족도 비교는 동질성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과 동아리 활동 여부를 공변수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으로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들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이 완료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응답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종료 후 설문지는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 중 여성이 90% 이상을 차지하였고 진로교과목 수강군은 20세 이하가 75.5%, 진로교과목 미수강군은 59.5%로 나타나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재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서는 진로교과목 수강군의 경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는 대상자가 63.6%였으나 진로교과목 미수강군은 49.5%만 현재 동아리활동을

Table 1. Homogeneity tes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

(N=221)

Characteristics	Categories	Taking Career Courses(n=110)		Not taking career courses(n=111)		χ^2	p
		n	%	n	%		
Sex	Male	10	9.1	11	9.9	0.043	.836
	Female	100	90.9	100	90.1		
Age(year)	≤20	83	75.5	66	59.5	11.578	.003
	21-30	17	15.5	39	35.1		
	≥31	10	9.0	6	5.4		
Religion	Yes	36	32.7	27	24.3	1.914	.167
	No	74	67.3	84	75.7		
Part-time job experience	Yes	91	82.7	97	87.4	0.945	.331
	No	19	17.3	14	12.6		
Current club activities	Yes	70	63.6	55	49.5	4.462	.035
	No	40	36.4	56	50.5		
Academic achievement	High	12	10.9	11	9.9	1.830	.400
	medium	64	58.2	74	66.7		
	low	34	30.9	26	23.4		
Department selection motive	aptitude and interest	43	39.1	38	34.2	3.811	.432
	the entrance examination score	3	2.7	7	6.3		
	Invitation from parents or relatives	15	13.6	17	15.3		
	I got a job after graduation	42	38.2	46	41.5		
	Etc	7	6.4	3	2.7		
Desired place of employment after graduation	University Hospital	58	52.8	52	46.9	8.852	.115
	2nd hospital	25	22.7	39	35.1		
	Official	12	10.9	12	10.8		
	Industry	4	3.6	1	0.9		
	another country	2	1.8	4	3.6		
	Etc	9	8.2	3	2.7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 선택 동기는 진로교과목 수강군의 경우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가 39.1%로 가장 많았고 진로교과목 미수강군은 '졸업 후 취업이 잘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1.5%로 가장 많았으나 두 군간 차이는 없었다.

3.2 진로교과목 수강유무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차이

대상자의 진로교과목 수강유무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차이는 일반적 특성에서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연령과 현재 동아리 활동을 공변량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진로교과목 수강군의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3.52±0.59 점이었으며, 진로교과목 미수강군의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3.29±0.53점으로 나타나 두 군간 유의한 차이(F=438.08, $p<.001$)를 나타냈다. 진로준비행동 하위영역을 살펴본 결과 자기이해행동(F=342.06, $p<.001$), 직업능력향상

행동(F=475.09, $p<.001$), 직업세계탐색행동(F=357.01, $p<.001$)로 확인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2.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o take career courses

Variables	Taking Career Courses (n=110)	Not taking career courses (n=111)	F	p
	M±SD	M±S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52±0.59	3.29±0.53	438.08	<.001
Self-understanding behavior	3.47±0.65	3.28±0.57	342.06	<.001
Vocational skills improvement behavior	3.58±0.60	3.30±0.52	475.09	<.001
Career world exploration behavior	3.52±0.62	3.28±0.62	357.01	<.001

3.3 진로교과목 수강유무에 따른 전공만족도 차이

대상자의 진로교과목 수강유무에 따른 전공만족도 차이는 일반적 특성에서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연령과 현재 동아리 활동을 공변량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진로교과목 수강군의 전공만족도는 평균 3.98 ± 0.63 점이었으며, 진로교과목 미수강군의 전공만족도는 평균 3.66 ± 0.62 점으로 나타나 두 군간 유의한 차이 ($F=461.45, p<.001$)를 나타냈다. 전공만족도 하위영역을 살펴본 결과 일반만족($F=297.98, p<.001$), 인식만족($F=372.34, p<.001$), 교과만족($F=236.39, p<.001$), 관계만족($F=305.03, p<.001$)로 확인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3. Differences in major satisfaction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o take career courses

Variables	Taking Career Courses (n=110)	Not taking career courses (n=111)	F	p
	M±SD	M±SD		
Satisfaction in Major	3.98±0.63	3.66±0.62	461.45	<.001
General satisfaction	3.90±0.78	3.53±0.71	297.98	<.001
Recognition satisfaction	4.31±0.74	4.05±0.76	372.34	<.001
Subject satisfaction	3.65±0.82	3.34±0.77	236.39	<.001
Relationship satisfaction	3.80±0.79	3.47±0.79	305.03	<.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교과목 수강유무에 따른 진로준비행동과 전공만족도의 정도 및 차이를 비교하여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진로교과목 수강군의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3.52 ± 0.59 점, 진로교과목 미수강군의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3.29 ± 0.53 점으로 진로교과목 수강군의 진로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두 군간 유의한 차이 ($F=438.08, p<.001$)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정확한 비교에 어려움은 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교과목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진로준비행동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18-20]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진로교과목 수업을 통하여 자신의 흥미, 성격, 적성 등을 알게 되고, 진로활동에 필요한 노력 및 정보를 습득하며, 진

로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것 [19]이 간호대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진로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좋은 학점 취득을 위하여 성실하게 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18]하므로 진로교과목의 학점제 운영도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관련 과목 수강은 자기이해와 직업세계 탐색을 통하여 진로선택에 대한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고, 이는 선택한 진로에 대한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므로[20] 체계적인 진로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진로준비행동수준을 높여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현실 적응력을 향상[24]시킬 수 있도록 신입생부터 졸업시까지 단계적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진로교과목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준비행동의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자기이해행동 ($F=342.06, p<.001$), 직업능력향상행동 ($F=475.09, p<.001$), 직업세계탐색행동 ($F=357.01, p<.001$), 모두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진로교과목 수강유무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하부영역의 차이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나,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의미하는 '직업능력향상행동'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로교과목 운영 시 강의보다는 주로 개인이나 조별 활동으로 자기소개서 작성과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 등 진로에 대한 활동을 직접 시행하게 한다 [18]. 이를 통하여 본 연구 대상자들은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의 중요성을 깨닫고 간호사라는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것이라고 다짐한 것이 직업능력향상행동 정도를 높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상급종합병원 입사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나 영어 능력 시험 준비에 몰두하거나, 취업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추가로 준비하기 위해 휴학을 하기도 한다[25]. 또한, 진로준비가 부족하면 취업 후 사회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26], 진로교과목을 수강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이 추후 간호사로서의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함께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하여 진로준비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진로교과목 수강군의 전공만족도는 평균 3.98 ± 0.63 점, 미수강군의 전공만족도는 평균 3.66 ± 0.62 점으로 나타나 두 군간 유의한 차이 ($F=461.45, p<.001$)를 보였다. 진로교과목 수강 여부에 따른 전공만족도를 확인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본인의 적성과 흥미보다는 학과 취업률이나 성적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만족도는 낮아지고 향후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 그러나 진로탐색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하며, 진로결정에 편안함을 느낄 뿐 아니라 진로선택 문제에 대하여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높아지게 된다[18]. 대부분 자신이 설정한 목적과 비교하여 전공학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진로에 대한 사고와 전공과목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결합하여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게 된다[28]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특히 전공에 대한 선택 동기가 타인에 의해 결정된 경우가 많은[29] 간호대학생에게 저학년 시기에 진로교과목 교육을 실시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 의료인으로서 임무를 다하는 지식함양과 인격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전공만족도의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일반만족($F=297.98, p<.001$), 인식만족($F=372.34, p<.001$), 교과만족($F=236.39, p<.001$), 관계만족($F=305.03, p<.001$) 모두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나 교수-학생 간의 '관계 만족'에 차이를 보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던 진로 프로그램들은 단발성 특강형식이 대부분이어서 지속성을 가지기가 어렵고 진로를 탐색하거나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행동의 변화로 연결되기가 어려우며, 주제별 인력풀의 제한 등으로 체계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30].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에서 진로교과목은 학점을 이수하는 한 학기동안의 강좌로 장기적으로 진로에 대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하면서[3] 담당교수가 배치되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므로 일회성 형식의 프로그램보다는 교수와 관계 형성의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교수가 진로교과목을 운영하였는데, 간호학의 특성 상 학생과 교수가 동일한 전공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생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쉬워 교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간호학과에서 진로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전공교수를 배치하여 운영한 후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보건 문제 발생으로 간호사의 역할이 주목받고, 간호사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듯 보건영역에 간호사가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대학생 시기에 개인적인 측면과

더불어 보건의료계의 질 관리 측면인 양질의 간호사 양성을 위해 진로준비행동 및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활동중심의 진로교과목을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과목 수강유무에 따른 진로준비행동과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진로교과목 수업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진로결정을 돕는 전략으로 진로교과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체계화된 진로교과목의 내용을 구성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H. J. Kim. (2007).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2] E. S. Lee & H. K. Lee. (2020). Meta-analysis of the Effect of Career Subject Class for Undergraduate.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9(2), 71-91.
DOI : 10.37210/JVER.2020.39.2.71
- [3] G. H. Gim. (2015). *Meta-Analysis on the effect of university career course*. master's thesis, National University, Seoul.
- [4] K. S. Bang & J. K. Cho. (2008).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and Graduates on Nursing and Future Career.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14(1), 88-97.
- [5] J. S. Jung., M. J. Jeong & I. Y. Yoo. (2014).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27-36.
DOI : 10.5977/jkasne.2014.20.1.27
- [6] J. S. Kim. (2019). *The Effect of Vocational Consciousness, Social Responsibility, and Self*

- 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 [7] I. O. Moon & G. W. Lee. (2010).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83-91.
DOI : 10.5977/JKASNE.2010.16.1.083
- [8] B. H. Kim et al. (2013). Current situation and the forecast of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nursing workforce in Korea.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5(6), 701-711.
DOI : 10.7475/kjan.2012.24.6.701
- [9] B. W. Kim & K. H.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1), 311-333.
- [10] M. S. Cho & K. S. Choi. (2007). A model testing on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8(3), 1085-1099.
- [11]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06). *Research on career education programs for college students*. Chung-cheong bukdo.
- [12] Y. J. Ko & I. K. Ki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62-71.
- [13] M. Y. Chang. (2005). *The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n 소학 majors, attributional style, and career decision level*.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4] A. Milsom & J. Coughlin. (2015). Satisfaction with college major: A grounded theory study. *NACADA Journal*, 35(2), 5-14.
DOI : 10.12930/NACADA-14-026
- [15] C. T. Logue.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vocational interest themes, and college major satisfac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 [16] S. J. Park. (2015).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on Career Development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259-267.
DOI : 10.5977/jkasne.2012.18.2.259
- [17] M. H. Han. (2011). A study to develop and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a career education program for undergraduat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4(2), 95-113.
- [18] J. Y. Kim, Y. S. Lee & D. W. Kim. (2012). The effectiveness of "Career Searching programs" delivered as part of university curriculum. *The Journal of Humanities*, 28, 399-421.
- [19] S. R. Kim & M. K. Chung. (2014). The Effect of College Career Course on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6(3), 409-433.
- [20] M. H. Hwang., M. I. Son. & H. Y. Kang. (2007). The Effectiveness of A College Career Course. *Asian Journal of Education*, 8(1), 71-91.
DOI : 10.15753/aje.2007.8.1.004
- [21] Y. K. Choi & S. H. Kim.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5), 2085-2097
DOI : 10.15703/kjc.13.5.201210.2085
- [22] K. H. Kim & H. S. Ha.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1(1), 7-20.
- [23] D. J. Lee.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24] S. K. Lee & J. K. Lee(2008).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First Job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Depending on Employment Goa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1(3), 1-25.
- [25] H. Y. Koo., O. K. Park. & K. W. Jo. (2017). Experience of Career Decision of Korean Nursing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3(2), 168-178.
DOI : 10.4094/chnr.2017.23.2.168
- [26] Rönkä, A. & Pulkkinen, L. (1995). Accumulation of problems in social functioning in young adulthood: A development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2), 381-391.
DOI : 10.1037 /0022-3514.69.2.381
- [27] M. H. Jeong & M. A. Shin.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170-177.
- [28] H. R. Kim., H. J. Kim & H. H. Yoon. (2019). Th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Flow of Highschool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r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5(3), 200-212.
DOI : 10.20878/cshr.2019.25.3.020
- [29] H. S. Park., J. M. Yun., S. N. Lee., S. R. Lee & M. S. Lee.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3(1), 35-45.
DOI : 10.21032/jhis.2018.43.1.35
- [30] Y. J. Kim. (2009). *A Research on Improving Career & Job Searching Courses in Universitie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정 경 숙(Kyeong-Sook Jeong)

[장학원]



- 2015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2017년 2월 : 창신대학교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건강증진행위, 자아존중감

· E-Mail : jksbook@hanmail.net

김 동 원(Dong-Won Kim)

[장학원]



- 2015년 8월 : 동아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9월 ~ 2019년 2월 : 진주보건대학교 조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삶의 질, 회복탄력성

· E-Mail : dongwon1081@hanmail.net